



I. 머리말

제 6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의 시작연도인 87년도의 석유제품수요는 작년도인 86년도 수요 209,612천 배럴보다 약 1.7% 증가된 213,185천배럴(584천B/D) 로 추정된다.

石油製品 수급계획

南宮 堅
(동력자원부 석유수급과장)

이러한 石油需要는 79년도에 몰아닥친 제 2 차 석유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脫石油政策 및 에너지소비절약 등의 영향으로 80년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석유류수요가 86년도의 3 低현상으로 국내경기의 호전 및 국내 油價하락에 힘입어 처음으로 2억배럴 이상을 소비, 85년 대비 8.2%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87년에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脫石油政策과 강력한 에너지소비절약시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총 에너지수요중 석유의존도를 작년도의 47.8%에서 금년도에는 44.4% 수준까지 감소시켜 나갈 계획에 따라 석유소비증가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表-1〉 참조).

87년도 석유류수급계획을 기술하기에 앞서 지난 86년도의 수급실적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86년도의 석유제품 수급실적

1. 수요측면

지난 86년도의 석유제품 수급계획상 수요는 국제原油價 및 수급안정과 脫石油전원개발계획, 산업용 연료의 탈석유화 추세, 에너지소비절약 등의 추진으로 인한 수요감소 측면과 연초의 油價하락에 따른 국내경제의 과급효과로 85년도 수요보다 5.8% 증가된 205,071 천 배럴(561.8천B/D)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산업체의 연료대체 및 에너지소비절약, 그리고 脫石油전원개발 추진에 따른 발전용 유류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계획보다는 2.2% 증가하고, 85년도 수요보다는 8.2% 증가된 209,612천배럴(574.3천B/D)로 80년대 이후 최고의

〈表-1〉 연도별 石油製品 수요 추이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수요(천Bbl)	183,498	182,252	181,168	191,293	194,559	193,747	209,612	213,185
증감(%)	△ 1.0	△ 0.7	△ 0.6	5.6	1.7	△ 0.4	8.2	1.7
石油 의존도(%)	60.3	58.4	58.0	56.5	52.3	49.2	—	—

註：국제빙커링 포함.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세계적인 原油價 하락등 이른바 3低현상으로 인한 국내경기의 고율성장 및 세계적인 原油價 하락세를 반영한 3차례의 국내油價 인하로 인한 대외경쟁력 향상으로 국내산업의 가동증가 영향으로 생각된다.

소비경향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表-2〉 참조) 1/4 분기에는 2.6%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4분기 이후 3低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수출경쟁력제고, 민간투자 활성화, 공공사업확대 등으로 2/4분기에는 9.2%, 3/4 분기에는 11.3%, 4/4분기에는 9.8%로 증가하여 연간 누계로는 8.2%나 증가하였다.

86년도 소비동향을 주요 유종별로 살펴보면, (〈表-3〉 참조) 그동안 가장 높은 가격상승을 보였던 휘발유는 사용자 스스로의 소비절약 및 정부의 영업용 차량에 대한 LPG차량으로의 전환정책 등으로 인하여 80년도부터 3년간 그 소비율이 연평균 13% 정도씩 감소하였으나, 84년도부터 자가용차량의 급증 및 유사휘발유 사용 단속 등으로 휘발유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어 86년도에는 전년대비 24.4%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주로 취사·난방용연료인 燈油는 가정용 연료의 고급화 추세로 인한 LPG의 공급확대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이며, 가정·산업용 에너지源別 수요구성비에 있어서도 석유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무연탄과 전력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輕油는 예년의 2~4% 신장세가 83년도부터 차량의 급증추세에 따라 1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9.6% 증가하였다.

또한 81년도부터 2년동안 4%씩 감소해오던 나프타수요도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유화학업계의 풀가동에 힘입어 15.6%나 증가하였다.

LPG도 전년대비 23.4%의 큰폭으로 증가하여 가정용 연료의 고급화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탈석유정책의 추진에 의하여 83년이후 매년 큰폭

〈表-2〉 1986년도 분기별 消費실적

(단위：천배럴)

		1 / 4	2 / 4	3 / 4	4 / 4
당분기	1985실적 (%)	49,410 (△ 4.5)	44,853 (△ 3.2)	45,764 (1.0)	53,720 (5.0)
	1986실적 (%)	50,676 (2.6)	48,996 (9.2)	50,947 (11.3)	58,993 (9.8)
누계	1985실적 (%)	49,410 (△ 4.5)	94,263 (△ 3.9)	140,027 (△ 2.3)	193,747 (△ 0.4)
	1986실적 (%)	50,676 (2.6)	99,672 (5.7)	150,619 (7.6)	209,612 (8.2)

〈表-3〉 油種別 소비실적

		1985	전년대비(%)	1986	전년대비(%)
에너지油	揮發油	6,922	28.3	8,557	23.6
	燈油	7,933	△ 1.4	7,985	0.7
	輕油	52,648	5.5	57,707	9.6
	B - A	18.94	△ 5.0	2,292	21.0
	B - B	1,012	9.2	1,098	8.5
	B - C	72,010	△ 9.7	71,030	△ 1.4
	케트A-1	4,276	15.6	5,106	19.4
	J P - 4	3,350	△ 19.9	4,676	39.6
	프로판	6,772	27.7	9,411	39.0
	부탄	7,475	8.4	8,170	9.3
소계		164,292	△ 1.1	176,032	7.1
非에너지油	나프타	26,164	4.2	30,245	15.6
	용제	433	△ 45.9	425	△ 1.8
	아스팔트	2,858	11.9	2,910	1.8
	소계	29,455	3.5	33,580	14.0
합계		193,747	△ 0.4	209,612	8.2

註：국제빙커링 포함.

(表-4) B-C油 수요 구성비

(단위: 천배럴)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總 需 要	502.7	499.3	496.4	524.1	531.6	530.8	574.3
B-C 油 수요	254.7	253.6	245.3	241.2	217.9	197.3	194.6
B-C 油 구성비 (%)	50.7	50.8	49.4	46.0	41.0	37.2	33.9
기타 油 구성비 (%)	49.3	49.2	50.6	54.0	59.0	62.8	66.1

으로 감소해 오던 B-C油는 86년도에도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어 油類需要구조의 변화, 즉 重質油 구성비의 감소현상과 輕質油 구성비의 증가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총석유제품 수요중 B-C油 수요구성비는 82년에 50% 수준이던 것이 86년도에는 3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表-4〉 참조).

2. 공급측면

석유제품수요가 85년대비 8.2%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86년도의 전체 원유투입량은 209,699천배럴(575천B/D)로서 85년대비 4.5% 정도 증가된 수준이다. 그러나 원유임가공처리량 41,763천배럴(114천B/D)을 제외할 경우, 내수원유처리량은 167,936천배럴(460천B/D)이며, 임가공제품의 수출실적인 25,338천배럴의 정제에 소요된 26,288천배럴을 감안할 경우, 실제 내수용 原油처리량은 183,411천배럴(502천B/D)로 전년대비 4.8% 증가되었으며, 한편 국내제품 수요증가로 인한 원유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정유사의 가동률도 전년도 보다 3% 포인트 증가한 73% 수준이며, 그중 원유임가공으로 인한 가동률은 10% 수준으로서 정유사의 가동률 기여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원유처리량의 증가로 내수제품 생산량도 85년도 대비 4.6% 증가된 180,641천배럴이었고, 국내생산 부족분인 나프타와 LPG 및 저유황유 수요증가에 따라 석유제품수입량도 29,346천배럴로서 85년 대비 21.8% 증가하였다.

石油製品 수출량은 임가공 수출량의 증대에 따라 85년 대비 2.5%가 증가된 26,999천배럴이었으며, 수출금액도 4억2천만불이 되어 수출목표 달성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表-5〉 참조).

Ⅲ. 87년도 석유제품 수급계획

1. 수요추정 내역

87년도의 우리나라 석유제품수요는 전년대비 1.7% 증가된 213,185천배럴(584천B/D)로 전망되며, 동수요중 에너지油는 179,137천배럴로 전년대비 1.8% 증가되고, 비에너지油는 34,048천배럴로 전년대비 1.4%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배경은 올해의 경제성장률 8%, 제조업성장률 10%로 전년도에 이어 경기회복의 가속화에 따른 물동량 증가 및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자가용 수요의 잠재력으로 차량수요는 전년대비 약 20%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수송부문 수요가 약 14%수준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石油제품 수요감소 측면으로서는 발전용 수요는 석유류에서 원자력, LNG 및 유연탄으로 대체됨에 따라 발전용 연료는 전년대비 무려 42.2%나 감소될 전망이다.

政府의 石油의존도 감축을 위한 연료의 他燃料 대체에 따라 국내석유류 수요의 절대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총 에너지의 석유의존도는 매년 감소될 전망이며, 또한 올해의 에너지절약시책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및 주택구조가 종전의 에너지 다소비형태에서 점차 에너지절약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점등 제반수요감소요인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올해의 석유제품 수요는 전년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發電用 연료유 수요를 제외할 경우 전년대비 8.3% 정도 증가되는 수요인 것이다.

(1) 유종별 제품수요

13개 油種의 석유제품을 용도별로 대별하면 에너지油

〈表-5〉 1986년도 石油需給 총괄

(단위: 천배럴)

			1985	1986	전년대비(%)	
原油	연 초 재 고		16,246	12,976	△20.1	
	공 급	수 입	내 수	163,932	178,348	8.8
			임 가 공	34,381	41,924	21.9
			제 고 중 당	—	9,791	—
			計	198,313	230,063	16.0
	수 요	(잔 류)	내 수	167,322	167,936	0.4
			임 가 공	33,333	41,763	25.3
			(잔 류)	(7,618)	(15,475)	(103.1)
			計	200,655	209,699	4.5
			(실 내 수)	(174,940)	(183,411)	(4.8)
연 말 재 고		12,976	32,355	148.8		
製品	연 초 재 고		9,882	11,440	15.8	
	공 급	실 내 수 생산	순 내 수 생산	172,765	180,641	4.6
			임 가 공 잔 류	165,420	165,727	0.2
			(임 가 공 생산)	7,345	14,914	103.0
			(32,139)	(40,252)	(25.2)	
			수 입	24,095	29,346	21.8
	計		196,860	209,987	6.7	
	수 요	수 출	내 수	189,191	201,624	6.6
			국제 병 커 링	4,556	7,988	75.3
			計	193,747	209,612	8.2
연 말 재 고		11,440	10,154	△11.2		

와 非에너지油로 구분할 수 있는데, 87년도의 총제품수요 213,185천배럴중 휘발유, 燈·輕油, B-C油 및 LPG를 주축으로 한 에너지油(10개油種)는 전체 수요의 84%인 179,137천배럴로서 전년대비 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휘발유와 輕油, 그리고 제트유, LPG 등 輕質연료油는 약 9.6%수준 증가하나, 重質油가 11.8% 정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를 다시 油種別로 살펴 보면, 〈表-6〉에서 보는바와 같이, 등유, B-C油, 아스팔트만 감소추세이고, 나머지 油種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B-C油는 감소폭이 13.0% 수준인 반면, 휘발유와 LPG는 휘발유 유사제품의 유통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실시와 차량수요증가 및 여객·물동량

〈表-6〉 油種別 소비실적

(단위: 천배럴)

		1986	전년대비(%)	1987	전년대비(%)
에너지油	揮發油	8,557	23.6	10,548	23.3
	燈油	7,985	0.7	7,816	△2.1
	輕油	57,707	9.6	63,409	9.9
	B-A	2,292	21.0	2,334	1.8
	B-B	1,098	8.5	1,162	5.8
	B-C	71,030	△1.4	61,821	△13.0
	제트A-1	5,106	19.4	5,890	15.4
	JP-4	4,676	39.6	4,964	6.2
	프로판	9,411	39.0	12,380	31.5
	부탄	8,170	9.3	8,813	7.9
計		176,032	7.1	179,137	1.8
非에너지油	나프타	30,245	15.6	30,716	1.6
	용제	425	△1.8	446	4.9
	아스팔트	2,910	1.8	2,886	△0.8
	計	33,580	14.0	34,048	1.4
합 計		209,612	8.2	213,185	1.7

註: 국제 병 커 링 포함.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각각 23.3%, 2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나프타, 용제, 아스팔트를 주축으로 하는 非에너지油는 전년대비 1.4% 증가하는 수준이다.

이상에서 전망한 바와 같이, 87년도 유류수요변화추이의 큰 특징중의 하나는 경질유 수요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중질유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여 경질유와 중질유의 구성비가 작년도의 63대37에서 68대32로 변화하고 있는 점이다.

2. 수급계획 내역

(1) 개 요

87년도 석유제품의 수급계획은 총제품수요 213,185천배럴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총수요의 약 86%에 해당하는 183,409천배럴은 산유국에서 원유를 도입하여 정제 제품으로 생산·공급하고, 일부 부족분은 제품을 수입하여 충당할 예정이며, 연말재고는 전년도 보다 약간 높게 유지할 계획이다(〈表-7〉 참조).

〈表 - 7〉 1987년 石油 수급계획

(단위 : 천배럴)

	공 급				수 요			수 출	연말재고
	연초재고	생 산	수 입	합	내 수	국제병커링	합		
86(잡정)	11,440	180,641	29,346	221,427	201,624	7,988	209,612	1,661	10,154
87(계획)	10,154	183,409	34,719	228,282	202,579	10,606	213,185	3,838	11,259
전년대비 (%)	△11.2	1.5	18.3	3.1	0.5	32.8	1.7	131.1	10.9

(2) 精油社 원유처리

〈表 - 8〉 1987년도 石油需給 총괄

(단위 : 천배럴)

전술한 183,409천배럴의 석유제품을 국내생산 공급하기 위하여는 이에 소요되는 원유수요는 전년대비 2.2% 증가된 187,464천배럴(514천B/D)이다. 그러나 87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原油임가공수출이 추진되어 임가공을 포함한 原油수요는 218,407천배럴 정도가 되어 전년도 실제원유처리량 209,699천배럴 보다 4.2% 정도가 증가될 전망이다. 이 물량은 정부가 石油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원유도입선 다변화정책의 추진으로 기확보된 물량과 세계원유시장의 공급과잉현상으로 인한 저렴한 현물시장의 원유로 조달할 계획이다.

한편, 原油임가공수출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精油社 가동률은 전년도 73% 수준보다 3% 포인트 높은 76% 수준이 될 전망이다.(表-8) 참조.

(3) 저유황연료유 공급계획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 및 차량증가 등으로 대도시와 공업단지 주변의 대기오염도가 증가되어 공해문제자 대두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황산가스(SO₂)의 오염도를 국제환경기준치인 0.05ppm 이하로 감소시켜 쾌적한 국민생활환경을 조성기 위하여 지난 81년도부터 서울지역과 蔚山화력발전소에 저유황연료유(B-C油와 경유)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대기오염도가 심한 지역부터 매년 확대공급하여 오며 따라 현재는 인천 및 경기일부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과 釜山, 蔚山 및 경남·북지역과 충남, 전남지역까지 공급하여 오고 있으며, 특히 차량용은 전국차량으로 확대공급하고, 서울지역은 전사용자에게까지 확대공급하고

		1986	전년대비(%)	1987	전년대비(%)	
原 油	연 초 재 고	12,976	△20.1	32,355	148.8	
	공급	내 수 수 입 임가공 재고충당	178,348	8.8	176,036	△ 1.3
			41,924	21.9	43,750	4.4
			9,791	-	9,838	0.5
			합	230,063	16.0	229,624
	수요	내 수 임 가 공 (잔 류)	167,936	0.4	174,657	4.0
			41,763	25.3	43,750	4.8
			(15,475)	(103.1)	(12,807)	(△17.2)
	합	209,699	4.5	218,407	4.2	
	(실 내 수)	(183,411)	(4.8)	(187,464)	(2.2)	
연 말 재 고	32,355	148.8	42,693	32.0		
製 品	연 초 재 고	11,440	15.8	10,154	△14.6	
	공급	실내수생산 순내수생산 임가공잔류 (임가공생산) 수 입	180,641	4.6	183,409	1.5
			165,727	0.2	171,050	3.2
			14,914	103.0	12,359	△17.1
			(40,252)	(25.2)	(42,218)	(4.8)
			29,346	21.8	34,719	18.3
	합	209,987	6.7	218,128	3.9	
	수요	내 수 국제병커링	201,624	6.6	202,579	0.5
			7,988	75.3	10,606	32.8
			합	209,612	8.2	213,185
수 출			1,661	6.8	3,838	131.1
연 말 재 고	10,154	△11.2	11,259	10.9		

있다.

이렇게 매년 연차적으로 저유황연료유를 확대·공급함

에 따라 해당지역의 유류에 의한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둔화 내지는 감소되고 있어 그야말로 저유황유의 확대 공급이 대도시 및 공단주변의 대기오염도 감소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겠다.

한편, 87년도의 저유황연료유 공급확대 문제는 정유사의 저유황원유 확보상태, 탈황 및 임가공실시 등 저유황유공급능력을 감안하여 蔚山, 嶺南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2.5% B-C油를 1.6% B-C油로 공급, 저유황유 공급률을 輕油는 80%, B-C油는 63%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확대공급시기는 공급자와의 수용 준비기간을 고려, 금년 하반기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중에 重質油 탈황시설 2기(시설규모 50천BPSD)를 착공하여 90년 이후부터는 주요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유황함량 1.0%이하의 B-C油를 공급하는등 국내 저유황 연료유의 안정공급을 기할 계획이다.

〈表 - 8〉 연도별 低硫黃油 공급률 현황

(단위: 공급률%)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계획
輕 油	10	23	35	49	64	77	80
B - C 油	11	26	33	38	47	59	63

(4) 無鉛휘발유 공급계획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에 無鉛휘발유를 공급하게 되는데, 현행 휘발유에 비해 옥탄價가 높은 無鉛휘발유의 공급은 환경보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배출가스농도기준을 현재의 허용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수준으로 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보사부령 제77호, 85. 10. 28)함에 따라 차량 주행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을 촉매를 통한 산화·환원반응시켜 무해한 이산화탄소(CO₂)와 물(H₂O)로 전환시켜 주는 산원촉매전환장치를 신규제작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하여 이에따라 무연휘발유공급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시판중인 有鉛휘발유는 옥탄가 향상을 위하여 4에틸납을 첨가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유연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휘발유중의 납 화합물이 촉매전환장치의 촉매에 피막을 형성, 촉매의 기능을 방해하여 배기

〈表 - 9〉 無鉛揮發油 공급계획

	휘발유차량(천대)			총휘발유수요(천배럴)		
	유연용	무연용	計	유 연	무 연	計
물 량	643	60	703	10,128	420	10,548
구성비%	91.5	8.5	100	96.0	4.0	100

註: 무연휘발유차량 환경청資料

가스 정화기능을 저하시킴으로 납을 첨가하지 않은 無鉛 휘발유의 사용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무연휘발유가 원활히 공급되기, 위하여는 가격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격 결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현재 유연휘발유보다 15% 정도 생산비용이 높은 무연휘발유의 출고가격과 무연휘발유 주유기 설치유도를 위한 주유소의 판매마진을 높게 책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소비자 가격은 현재 유연휘발유보다 높지 않게 결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정부비용부담인 휘발유의 특별 소비세를 무연휘발유에 한하여 현행 100%를 70%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表 - 10〉 자동차 배출가스 농도기준

	규 제 항 목	현 행	개 정
휘발유및LPG차	일산화탄소(CO)	18.0g/km	2.11g/km
	탄 화 수 소(HC)	2.8g/km	0.25g/km
	질소산화물(NOx)	2.5g/km	0.62g/km

〈表 - 11〉 揮發油 규격 비교

	1 호	2 호	3 호	*4 호
옥 탄 價(RON)	95이상	91이상	88이상	91이상
색 상	착 색	착 색	착 색	노란색
납 (g/l)	0.3이하	0.3이하	0.3이하	0.013 이하
인 (g/l)	-	-	-	0.0013이하

註: 1) 납의 경우 1호, 2호 및 3호의첨가제의 종류 및 허용한도는 환경보전법이 정하는바에 따르고 그 단위는4에틸납기준ml/l로한다.
2) *는 무연휘발유임.

IV. 맺는 말

86년도의 3低현상으로 인한 국내경기의 고율성장에 따라 유류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70년대의 연평균 10% 이상의 큰 수요증가추세는 앞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탈석유화 및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의 착실한 추진과정 속에서 완만한 수요증가세가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87년도의 국내 석유제품 수급계획을 전망해 볼 때, 中東지역의 정세가 일말의 불안으로 상존하고는 있으나, 國際原油市場의 공급안정과 原油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므로 일단은 별문제가 없다고 보겠다. 그러나 에너지수급이란 모자라도 걱정이지만 남아도 문제이므로 금년도 석유제품 수급계획상에 나타난 몇가지 특징을 언급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石油 수요패턴이 선진국화 되어가는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휘발유, 나프타, 경유, LPG 등의 경질유 수요

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생산 공급물량이 부족한 油種은 상당량을 수입하여야 할 형편인 반면, B-C 油와 같은 중질유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어 생산 과잉으로 일부 수출해야 할 입장이다. 또한 매년 사용량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저유황연료유와 가스연료도 이제는 유류 수급계획에 배놓을 수 없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일부 油種의 수입물량도 증가추세에 있어 수급상황변동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부문이다. 이러한 일부 유종간의 수급불균형 문제는 정부의 가격 정책적인 측면과 정유사 스스로 장·단기적 국내석유수요 패턴 및 自社 수급동향에 알맞는 원유도입 및 정제시설(탈황, 분해시설등)의 설비등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것이며,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공해연료인 저유황유(경유, B-C油)에 이어 無鉛휘발유가 신규로 전국에 공급되어 대기오염방지는 물론 쾌적한 국민 생활 환경조성에 정유사 및 유통부문에 종사하는 분들의 협조가 기대된다. ☐

□ 漫評 □

無鉛휘발유 등장!

